



2024 winter

동국대학교의료원보

vol.41

지구가가 아프면

토양·수질오염과 건강

사람도 아프다



지금 만났듯이

먼 훗날 어찌면 우리는 또다시 만날 것입니다.

한 그루 나무로, 나뭇가지 사이를 지나는 바람으로,

꽃으로, 물방울로 혹은 아득한 어떤 메아리로

우리는 다시 만나 흐를지도 모릅니다.

인연은 인연을 낳습니다.

그것이 우리들 시간의 법칙입니다.

〈좋은 건 다 네 앞에 있어〉중에서
지은이 _ 정전 | 출판사 _ 마음의 숲

발행인 채석래
발행처 동국대학교의료원
발행일 2024년 12월 1일 (통권 41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대표전화 1577 · 7000
기획 · 편집 · 디자인 동국대학교의료원 편집위원회

gil

2024
winter
vol.41

HEALTH

05 Intro

살아있는 흙,
건강한 생명력

06 Zoom in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든
토양·수질 오염

10 Medical Theme 1

폐암을 극복하자

12 Medical Theme 2

만성 신장병 환자,
투석이 필요한 경우

14 Medical Theme 3

산만한 우리 아이,
ADHD 일까요?

16 Good Doctor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연마하는 의사

20 Korean Medicine

체내로 들어온
유해 화학물질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HAPPINESS

22 Essay

고요한 밤
거룩한 밤

24 Travel

평생 다시 만날 수 없는
연인을 보내는
밤처럼 빛나는 도시
스페인 톨레도

28 Law

계단에서 넘어져 다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30 Book

불경

DUMC

32 Focus 1

불교 정신으로 빚어낸
자비의료 실현
동국대학교의료원 건학위원회

32 Focus 2

한방에서 찾는 건강한 삶
한방의날 기념행사

38 Team

정밀하게 암세포 사멸시키고,
따뜻하게 환자 품는 사람들
방사선종양학과

42 News

동국대학교의료원 뉴스

45 Donation

보시공덕

48 Together

여러분과 함께하는 길

51 Schedule

진료 일정 안내

PART 1
HEALTH

Medical Theme

토양 · 수질오염과
건강

살아있는 흙, 건강한 생명력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든
토양·수질 오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바다와 식탁을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

폐암을 극복하자

만성 신장병 환자,
투석이 필요한 경우

산만한 우리 아이,
ADHD 일까요?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연마하는 의사

체내로 들어온
유해 화학물질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살아있는 흙, 건강한 생명력

그의 텃밭은 건강합니다. 햇볕 넉넉히 쬔고 바람 적당히 맞으며 자란 고만고만한 작물들이
철마다 풍성함을 뽐내내지요. 텃밭에서 거둬온 상추 호박 부추는 본연의 맛이 무엇인지를
입안 가득 체감하게 한답니다.

텃밭 농사에서 그가 꿈는 고비는 장마철입니다.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풀이 무서운
기세로 자라거든요. 장마철엔 텃밭에 열흘만 발길을 끊으면 풀이 가슴팍까지 올라온다지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초보 농사꾼은 어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하다가 슬그머니 텃밭
농사를 포기하곤 한다네요.

그는 풀과 싸울 생각을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흙은 햇볕에 노출된 상태가 가장 안 좋기 때문에
생명력 강한 풀을 키우는 거라네요. 풀이 무성해져 흙이 살아나면 풀의 세력은 조금씩 약해
진답니다. 풀이 자라는 건 흙이 건강해지기 위한 선택인 셈이지요. 그러니 텃밭의 풀에
애면글면 할 필요가 없지요. 풀이 자라는 걸 원천적으로 막는 비닐 멀칭(텃밭의 흙을 비닐로
덮어두는 방식)을 그가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화학비료나 농약도 당연히 쓰지 않고요. 대신
흙을 건강하게, 땅심을 기르는 데 온 신경을 쓰지요. 지구의 다양한 생명을 품고 순환시키는
흙의 생명력을 믿는 겁니다. 그의 이웃 농부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지요. 하지만 해충
피해도 없이 매년 작물을 건강하게 길러내는 그의 텃밭에 오랜 농사꾼 이웃도 엄지를
치켜올렸습니다.

흙이 건강해야 그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건강할 수 있지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듯합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뿌리고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묻어버리기
일쑤지요. 그렇게 오염된 흙은 물과 공기도 병들게 하고 결국 지구 생태계 전체를 위협할
텐데요. 흙의 자정능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흙을 돌보는 발길과 손길이 일상 곳곳에
필요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든 토양·수질 오염

토양과 수질 오염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 및 산업활동에 의해 생산된 공장폐수, 농약, 하수 및 분뇨가 토양과 자연의 하천, 호수, 해역 등에 흘러 들어가 자정능력을 초과한 것을 각각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이라고 합니다.



지표면의 오염 물질은 지하수 등 물의 순환을 따라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어 오염 범위가 커지게 됩니다. 토양과 수질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오염 물질에 노출되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토양에서 살아가는 생물체와 인근 하천 및 지하수의 오염을 통해 생태계가 변화되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가장 큰 수질 오염은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입니다. 대구 지역의 식수로 사용되는 취수장으로 페놀이 흘러들었으며, 염소를 이용한 정수 처리 과정에서 클로로페놀로 변하여 악취를 일으켰습니다. 1차 페놀 유출로 인해 수돗물의 페놀 수치가 0.11 ppm까지 올라간 지역도 있었는데, 이는 당시 우리나라의 허용치인 0.005 ppm의 22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허용치인 0.001 ppm의 110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해양 오염의 경우 일본의 미나마타병 사례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병은 미나마타만 주변 공장에서 배출된 폐수에 포함된 유기수은에 오염된 생선을 먹은 사람에서 발생했습니다.

토양 및 수질 오염은 생활 하수, 산업 폐수, 축산 폐수, 휴폐광산 및 제련소 등 공장, 석유화학물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 하수는 시골보다는 인구가 집중된 도시에서 더 문제인데, 도시의 하수는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 세탁 폐수, 화장실 분뇨, 세제류 등으로 구성됩니다.

산업 폐수는 세탁소나 사업장의 얼룩 제거나 기계류 세척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유기용제인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PCE)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 외 중금속의 경우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되어 결국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 환경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축산 폐수는 발생량에 비해 수질 오염 부하량이 매우 커서 오염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흘러보낼 시 하천의 수질 악화와 호수의 부영양화(영양염류가 풍부해지는 현상으로 식물 플랑크톤이 과다 증식할 수 있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방치된 1,460개의 휴폐광산과 제련소 등 공장의 중금속 오염 역시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유소나 송유관에서 흘러나온 석유화학물, 특히 휘발유에 첨가되는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가 주요한 오염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유조선 사고로 인한 대규모 해양 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토양·수질
오염 물질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토양과 수질 오염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환경 요소로서, 우리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농업, 산업 활동, 도시화 등으로 인한 오염은 식수와 농작물을 통해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을 흡수하게 만듭니다. 중금속, 화학 물질, 미생물 오염 등은 신경계, 소화계, 그리고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며, 장기적으로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청색증
고농도 질산성 질소(22mg/L 이상)는 어린이들에게서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안(CN)은 세포호흡 저해, 질식성 경련, 의식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빈혈 등 조혈기계 질환
벤젠, 수은, 납, 비소 등은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 질환
6가 크롬은 피부 궤양을 유발하고, 비소는 피부 각화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경계 독성
납, 수은, 알루미늄, 유기화합물 등은 학습 능력 저하, 중추신경계 기능 저하, 말초신경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 독성
카드뮴, 납, 수은 등은 단백뇨, 세뇨관 신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내분비 장애
납, 수은, 카드뮴, PCB, DDT, Dioxin 등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계의 장애를 유발하여 생식능력의 이상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암
벤젠은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고, 비소는 피부암, 6가 크롬, 석면 및 라돈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바다와 식탁을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

미세 플라스틱이란
의도적으로 제조되었거나 또는
기존 제품이 잘게 조각나서
미세화된 크기인 5mm 이하의
합성 고분자화합물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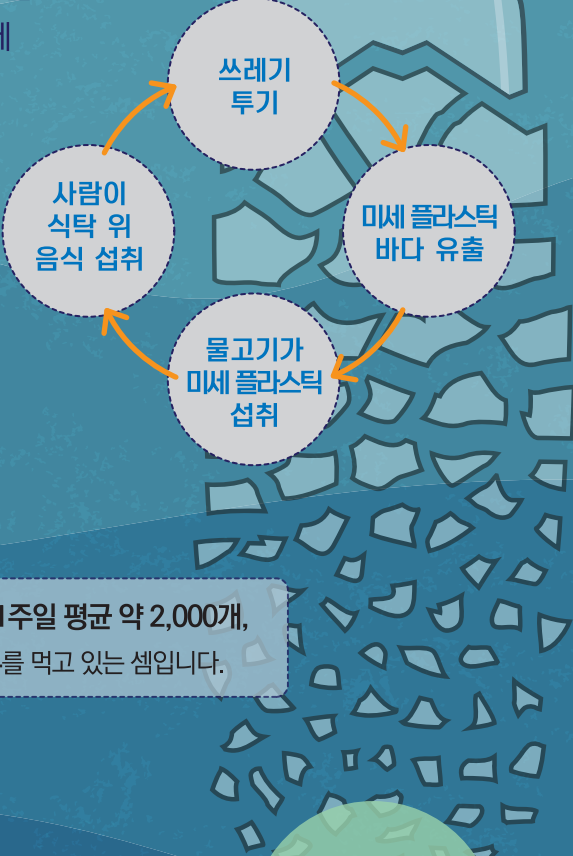
- 1차 미세 플라스틱 ▶ 세안제나 치약의 스크럽제 등 의도적으로 제조 당시부터 5mm 이하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 2차 미세 플라스틱 ▶ 페트병, 발대 등이 버려져 인위적이거나 자연 풍화에 의해 마모되거나 찢어져 작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파편

미세 플라스틱이 체내에
들어올 경우 **조기 염증, 면역세포저하,
간질성 폐 질환, 폐 기능 저하,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신용카드 한 장을
먹고 있다?

우리에게 돌아와 몸속으로 들어가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1주일 평균 약 2,000개,
무게로는 약 5g으로 신용카드 한 장 또는 볼펜 한 자루를 먹고 있는 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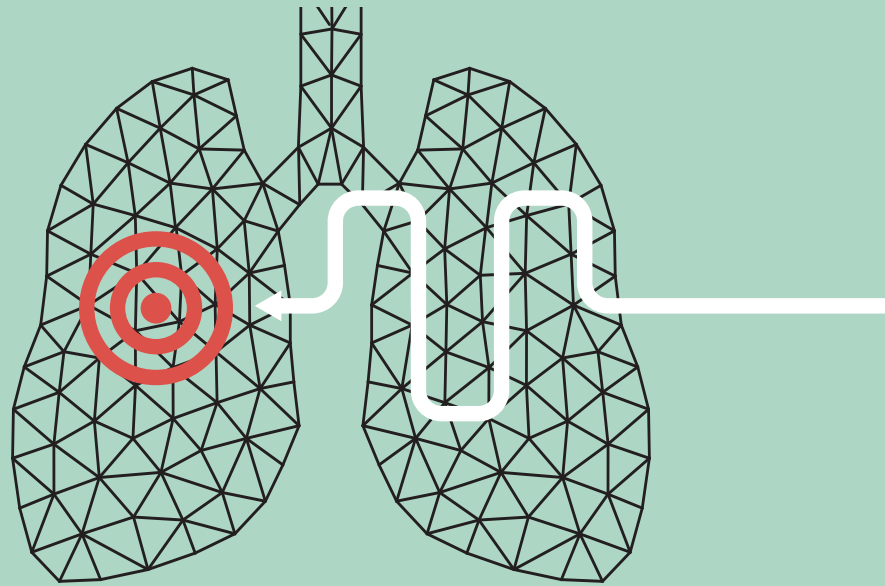


지구와 우리의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

- 플라스틱 올바르게 배출하기!
- 플라스틱 용기 대신 다회용 용기 사용하기!
-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 혹은 텀블러 사용하기!
- 물티슈 대신 행주 사용하기!
- 대체 가능한 천연소재 사용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식탁으로 돌아오는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폐암을 극복하자



흔히 느낄 수 있는 폐암의 초기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폐암의 증상은 애매모호하여 다른 질병과 구분되기 쉽지 않습니다. 초기인 경우는 거의 증상이 없으며 진행된 경우에도 일반 호흡기 질환 증상과 유사하여 폐암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 주간 지속 되는 기침, 피가 묻어나오는 가래, 원인을 알기 어려운 흉부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폐암을 발견할 수 있는 관련 정기 또는 예방 검진은 어떤 게 있나요?

폐암의 검진으로는 흉부 엑스선(X-ray) 사진과 CT 검사가 있습니다. 흉부 엑스선 촬영은 종양이 큰 경우는 발견할 수 있지만 진단율이 낮아서 효용성이 낮습니다. 저선량 흉부 CT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 방사능 피폭량을 대폭 줄인 CT 검사이며, 조기 폐암 진단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암 표지자 혈액검사 등은 폐암 검진에 도움 되지 않습니다.

암은 인류를 괴롭히는 아주 고약한 병입니다. 근대 의학이 발전함과 더불어 전 세계 수많은 의사와 과학자들의 치료와 연구를 통하여 암치료에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암 완전 정복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여러 가지 암 중에서 폐암은 치료 결과가 나쁜 암에 속하며, 2021년 국가통계자료에 의하면 폐암을 앓고 있는 환자 수는 121,747명이며 새롭게 진단받은 환자는 31,616명이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비하면 전체 폐암 환자 생존율이 약 2.5배 정도 증가하여 생존율 향상 속도가 다른 암에 비하여 매우 높아졌으나, 아직까지 5년 생존율이 38%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폐암 극복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발생 고위험군에 대한 범국가적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한 흉부 CT 검사와 국민 각자 폐암에 대한 관심, 금연 그리고 획기적 치료 약의 개발 등으로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암 환자 치료법은 어떤 게 있나요?

폐암은 1기부터 4기로 나누며 기수가 높을수록 병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1기, 2기인 경우 수술로 병소를 완전히 절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치료법입니다. 작은 절개창을 사용하는 흉강경 수술은 통증이 적고 환자의 회복이 빠른 최신 수술법이며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폐의 절제 범위는 폐엽 절제술이 표준적인 치료법이며 때에 따라서는 절제 범위를 축소한 썬기 절제술이나 구획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병기 2기, 3기인 경우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적절히 조합하여 치료함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4기는 보통 흉강 내 전이나 다른 장기로의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항암 화학 요법과 방사능 치료를 받게 됩니다. 최근에 개발된 표적치료제와 면역치료제가 여러 환자에게 반응이 좋게 나타나므로 4기인 경우에도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대처하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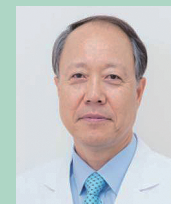
폐암의 경우 가족력 등 유전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나요?

매년 새롭게 진단되는 폐암 환자 중 가족력이 없는 환자가 더 많지만,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 형제

중 폐암 환자가 있는 경우 폐암의 발병률이 2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1~2년 간격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 피해야 할 음식(기호품 포함) 또는 예방에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폐암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히 중요한 음식과 식품은 없으며, 금연이 제일 중요한 예방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흡연 정도에 따라 폐암 발생률이 4~13배까지 높으며, 최근 많이 애용하고 있는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연기 속에 발암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폐암 발병 위험률은 일반 담배와 유사할 것이기에 반드시 금지해야 하는 기호품입니다. 공기 중 라돈 이온이나 미세먼지,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 화학 물질 등도 폐암 발병 요인이므로, 이런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주위 환경을 좋게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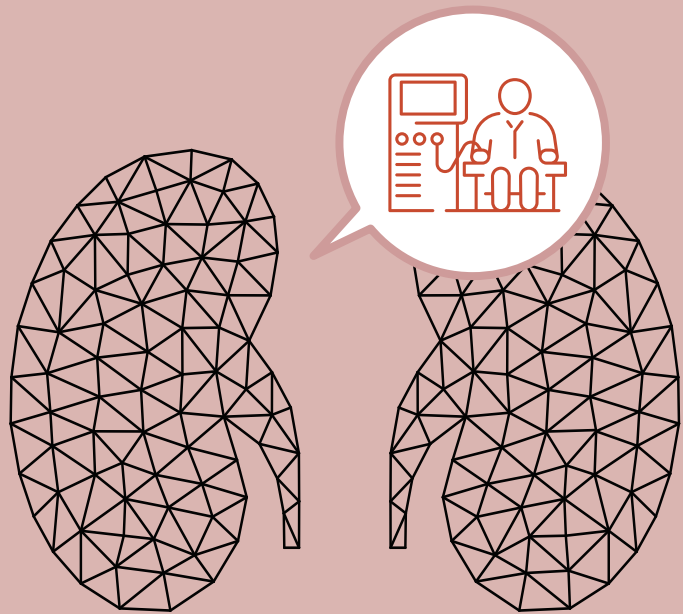
성숙환 교수

전문진료분야
폐암, 종격동 종양,
기흉, 폐수술 등

토양·수질
오염 물질

다이옥신은 물에 잘 녹지 않고, 미생물에 의해서도 쉽게 분해되지 않아 자연계에서 한번 생성되면 수십 년간 잔류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다이옥신은 물과 토양을 오염시켜 채소나 풀에 축적되고, 오염된 채소나 풀을 먹고 자란 가축의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등)에 농축됩니다. 국제암연구소는 다양한 연구를 근거로 다이옥신을 1군 발암요인(사람에서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으로 분류합니다. 다이옥신은 폐암,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의 암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또한 만성 노출 시 신경계, 면역계, 내분비계 및 생식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 신장병 환자, 투석이 필요한 경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은 관리 여부에 따라 악화되는 속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성 만성 신장병 환자들은 평균 1년에 10ml/min씩 악화되어 급방 신기능을 전부 잃어버리는 반면, 고혈압 및 당뇨 치료를 철저하게 하는 환자들은 1년에 1~2ml/min씩만 감소되어 본인의 신기능을 오랫동안 보존하기도 합니다. 신장을 잘 관리하는 방법으로 혈압, 혈당 관리 외에도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하루 소금 5g 미만의 저염식 식단을 지키며, 금연 및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요즘에는 혈압 관리도 생활 습관의 범주에 들어와 있습니다. 집에 혈압계를 두시고 꾸준하게 아침 저녁로 측정하여 기록하시면 좋습니다. 종종 백의 고혈압 및 가면 고혈압과 같이 진료실 혈압과 가정 혈압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께도 맞춤형 약물 치료가 가능합니다.

신장은 ‘콩’ 모양으로 ‘빨’의 색깔을 띠고 있다고 해서 콩팥이라고도 불립니다. 11~12센티미터 정도의 성인 주먹 크기만 한 이 장기는 매우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요독을 배출하는 역할부터 나트륨과 칼륨 등 전해질 조절, 산 염기 조절, 혈압 조절, 조혈 호르몬 생성, 비타민 D 합성까지 모두 신장에서 맡아서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신장이지만, 안타깝게도 만성 신장병 초기엔 신장이 악화되는 것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구체 여과율’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정상 수치는 90~120ml/min입니다. 그런데 만성 신장병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신기능 저하가 상당히 진행된 뒤인 30ml/min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혈액 검사를 통해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하여 60ml/min 미만일 경우 신기능 저하의

이런 각고의 노력에도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사구체 여과율이 30ml/min 미만으로 낮아진다면, 만성 신장병 4단계로 진단되어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신 쇠약, 부종, 호흡곤란, 가려움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혈액 검사상으로는 빈혈, 전해질 불균형, 대사성 산증, 부갑상선 항진증이 나타납니다. 이런 만성 신장병 합병증에 대해 약물 치료를 시작하며, 동시에 저칼륨 식단, 저인산 식단, 저단백 식단 등 더욱더 철저한 식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저염식이나 당뇨식도 먹기 쉽지 않았지만, 이때부터는 정말 “뭘 먹으라는 거냐”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식단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신장 합병증으로 인해 응급 투석이 필요하거나,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언제 어디서든 식단 관리가 필요함을 항상 유념하고 계셔야 합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15ml/min 미만으로 낮아진다면 이제 만성 신장병 마지막 단계인 만성 신장병 5단계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 신장 대비 15% 정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신장이 하는 역할 대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요독이 충분히 배출되지 못해 점점 체내에 쌓여 요독증이 발생합니다. 요독증은 피로, 전반적인 기력 저하, 식욕부진, 구역, 구토 등의 증상으로, 심하면 호흡곤란, 경련

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요독증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곧 투석기계의 도움을 받아 요독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앞으로 계속 유지 투석을 해야 함을 뜻합니다. 이 외에도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 폐 부종이 발생한 경우, 위험한 부정맥을 유발하는 고 칼륨 혈증이 발생한 경우, 전신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대사성 산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투석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투석을 시작한다고 해서 삶의 질이 꼭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투석을 시작한 초기에는 요독증이 호전되어 이전보다 훨씬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도 합니다. 다만 일주일에 3일씩 병원에 다니는 것은 일상 생활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성 신장병으로 진단되었다면 초기부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최대한 신기능을 보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신장내과

임 홍 일 교수

전문진료분야
혈액투석, 급/만성콩팥병, 노인신장병,
당뇨성신병증, 혈노 및 단백뇨, 요로감염

토양·수질
오염 물질

납, 수은, 카드뮴, 아연, 크롬 등이 대표적인 중금속으로 주로 환경 오염, 산업 활동, 농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통해 체내에 축적되며, 이들은 신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주요 원인입니다. 중금속은 신장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어 만성 신장 질환과 신부전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농약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신장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일부 농약은 신장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발암 물질로 분류됩니다.

산만한 우리 아이 ADHD 일까요?



아닙니다. 신경 화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몇 가지 주요한 요인이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ADHD의 치료에는 약물치료, 부모 교육과 상담, 가족치료, 놀이치료 또는 정신치료, 인지 행동치료, 사회성 훈련, 특수교육 등이 있습니다. 한 사례에 어느 한가지 치료법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몇 가지 치료법을 적절히 병합하여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약물치료가 있는데, 각성제 계통에 속하는 약물과 비각성제 계통에 속하는 약물들이 치료제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ADHD 약물에 대해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긍정적인 정보를 듣고 오시는 분도 있고, 마약중독에 빠지게 한다는 부정적인 정보를 듣고 우려 섞인 문의를 하시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하지만 ADHD 약물은 공부 잘하게 되는 약이 아니라서 ADHD의 병적 증상이 없는 일반 학생이 복용하면 어떠한 이득도 볼 수 없고, ADHD 약물을 비정상적으로 과량 복용하는 등의 남용을 하면 마약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적인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는 학령기 및 학령전기 아동에서 흔히 나타나는 소아정신과 질환으로 지속적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및 충동성의 증상을 보이며, 아동의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약 3~5%에서 ADHD가 발생하며,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3~4배가량 많습니다. ADHD 아동은 학업 수행에서 어려움을 보일 뿐 아니라 행동 조절에 문제가 있어 또래 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쉽고 학교 선생님께서 '말 안 듣는 아이'라는 평을 종종 듣게 됩니다.

ADHD가 있는 아동은 같은 나이나 발달 수준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이런 증상과 행동들이 더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나타나 아동을 주로 돌보는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와 의사의 진찰 소견을 토대로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ADHD의 원인은 무엇 일까요? ADHD는 한가지 원인에 의해 생기는 질환이

ADHD 질환이 non-ADHD 아이에 비해 전두엽의 도파민의 활성이 저해되어서 적어서 부족한 만큼 활성을 보충해 주는 것이 치료 원리로 알려져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치료제로 허가되어 있는 각성제 약물 성분에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제제가 유일합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도파민 합성도 늘리는 작용 원리를 가지고 있는 암페타민과는 달리 본래 가지고 있던 도파민을 방출, 재흡수를 하는데 그치는 작용을 하고 있어 마약 중독과 연결 짓기가 쉽지 않고, 고용량 처방 용량으로 생각했을 때도 중독이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허가된 약물을 정확한 진단을 받은 뒤 처방에 맞게 안전하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비약물적 방법으로는 부모 교육으로 부모님의 양육 기술을 변화시켜 아이의 바람직한 행동을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양육자를 보고 있지 않을 때 지시하지 않기, 시간 설정을 명확히 하기, 과제 난이도를 변화시켜 주기,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인 칭찬하기 등). 사회성 훈련(사회성 교실), 신체활동 증진도 아이의 성장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양육자들에게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 스마트 폰, 태블릿 등

기기로 학습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종종 많은 부모들이 이미 유치원과 학교에서 과제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곤 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3세 이전에는 미디어 시청을 최대한 줄이고, 직접 몸으로 놀이를 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교구로 학습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디지털 학습을 반대하는 추세이며, 작년 스웨덴 교육부에서는 10세 미만의 글쓰기 수업에서 디지털 도구 사용을 금지하여 종이책 독서와 종이 필기로 돌아가기를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학령기 및 학령전기 아동은 사회의 규칙을 존중하는 법과 적은 양이라도 재미있는 일을 꾸준히 하는 생활 습관이 배우기 시작해야 하는 연령입니다. 온라인 동영상이나 AI, 학습 애플리케이션으로 학습을 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개입은 ADHD가 있는 아동의 다양한 삶의 영역과 두뇌 발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 경 진 교수

전문진료분야
소아청소년 정신질환,
발달지연, 일반정신의학

토양·수질
오염 물질

수은은 주로 환경 오염, 산업 활동, 그리고 오염된 해산물 섭취를 통해 인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수은 중독은 불가역성의 중추신경장애인 만성 신경계 질환을 일으켜, 운동장애, 언어장애, 난청, 기억상실, 우울, 수면장애 증상을 나타내며, 심하면 사지가 마비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어린이가 메틸수은에 노출되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자폐증 등의 신경 발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연마하는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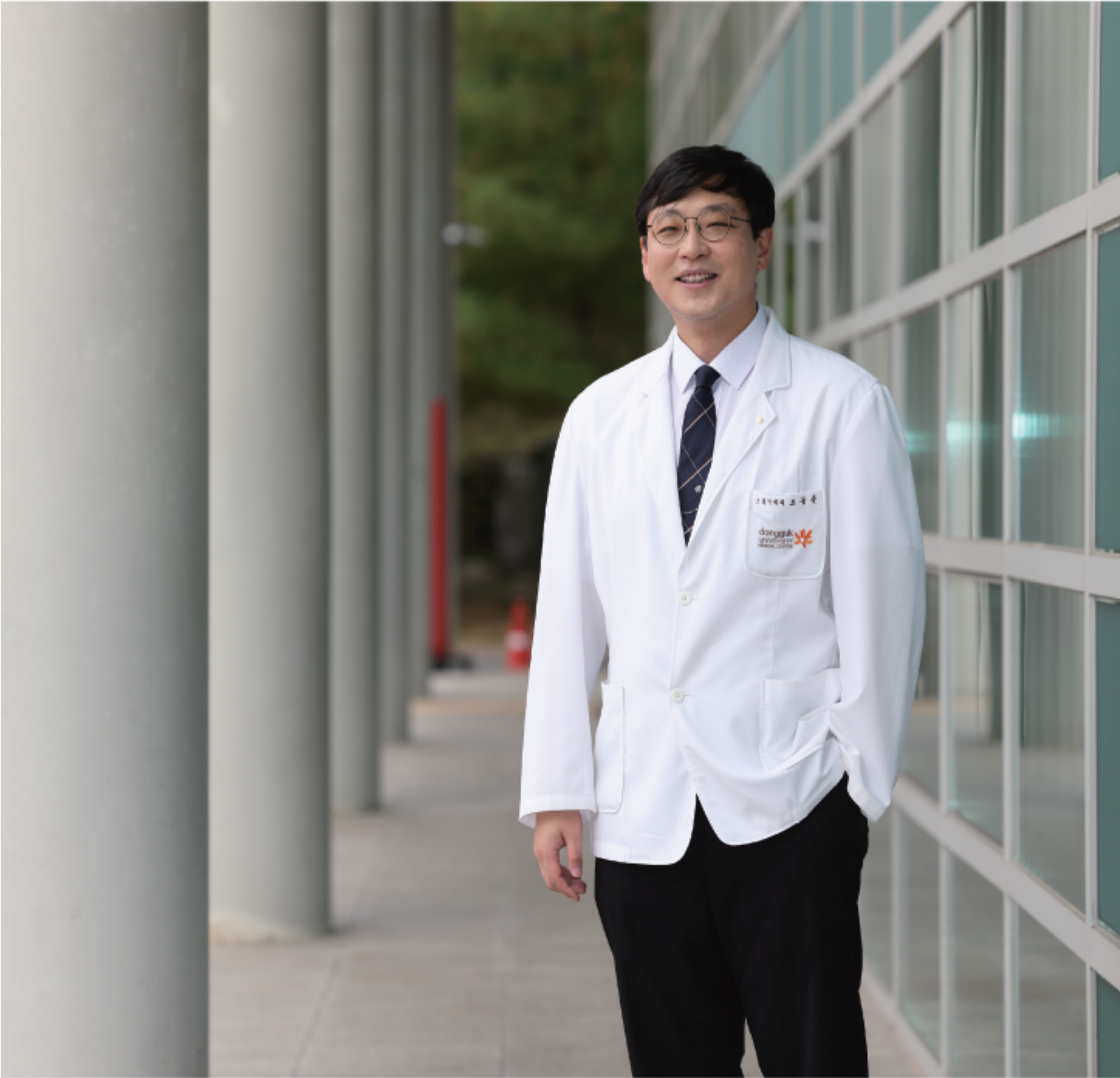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오 동 준 교수

현대사회는 다양한 자극적인
먹거리도, 스트레스도 넘치는
시대인 만큼 현대인들은 역류성
식도염이나 신경성소화불량,
과민성대장증상 정도는 달고 산다.
그러나 속이 편해야 일도 잘되고,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속 편한 인생’을
돕는 소화기내과 오동준 교수를
만나보았다.

소화기내과에서는 식도부터 대장 직장까지 소화기
전반을 다루는 진료과인데 오동준 교수는 특히 염증성
장 질환에 관심이 많다.
염증성 장 질환은 장관 내 비정상적인 만성 염증이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흔히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대표적이며 아직까지 명확한 발병 원인은 밝
혀져 있지 않다. 염증성 질환의 진단은 임상 증상, 내시경
및 조직 병리 소견, 혈액검사 소견, 영상의학 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염증성 장 질환은 증상이 호전과
악화되기를 반복하는 만성 질환으로서 증상과 염증을
조절하고, 합병증을 예방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 환자라도 복통, 설사 지속되면 크론병 의심해 봐야

오 교수는 기억에 남는 환자로 2년 전 응급실로 찾아
온 20세 여성 환자를 떠올렸다. 그 환자는 중학교 때
부터 배가 아프고 설사하는 일이 잦았다고 하니 꽤 오랫동안
병을 키운 셈이다. 근처 병원에서 진료를 보았
지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고, 환자 스스로
신경성이라 생각하고 지내며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
다가 복통이 심해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였다.
“처음에는 복부 CT를 찍어도 명확한 진단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변 검사에서 칼프로텍틴이라는
염증 수치가 높아서 아무래도 소장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소장 검사를 하기로 했지요.”
소장은 일반적인 위대장내시경으로는 보기 어려운
부위다. 다행히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일산 지역에서





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의사

오 교수는 소화기 진료를 하다 보니 환자 중에는 60대 이상 환자가 많다.

“연세 드신 환자들 중에서는 소화기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불량, 변비 등이 생기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세요. ‘역류성 식도염이다’ 이런 식으로 진단명을 원하시죠. 무조건 약을 달라는 경우도 많아요. 본인에게는 약이 효과가 별로 없는데도 달라고 우기세요.” 이런 경우에는 생활 습관 및 식습관 교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

일흔이 넘는 환자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같다’는 생각으로 대한다. 대학병원 진료를 받고자 가까이는 파주에서, 제주도, 강원도 등 멀리서 보호자도 없이 오는 환자들에게는 더욱 감사한 마음이다. 오시느라 고생했으니 한마디라도 더 환자의 이야기를 들으려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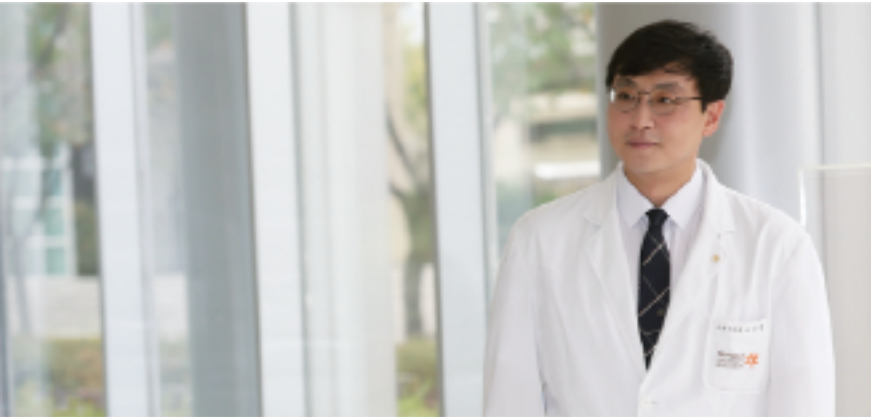
그는 환자의 연령별 특성에 맞게 응대하며 빠른

쾌유를 돕는다. 소화불량이나 복통 등의 위장 장애 증상이 있는 분들 중 정신건강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예민한 성격의 환자에게는 혹시 잠은 잘 자는지, 불안이나 우울 증상은 있는지 물어보기도 한다. 이러한 불안, 우울, 수면장애 등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진하여 약제를 복용하면 놀랍게도 위장약을 다 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뇌와 장은 서로 호르몬과 화학 신호를 통해 소통하고 있기에, 한 부분의 문제가 있으면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를 뇌-장 축(brain-gut axis)라고 하기에, 환자의 소화기 장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태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를 연마하는 의사

그는 “환자가 잘 치료되더라도 꼭 제가 아니더라도 잘 훈련된 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진료를 봅니다. 혹여 제 부족함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항상 저 자신을 돌아보며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게 됩니다”라며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신념을 밝혔다.

오동준 교수는 인터뷰를 마치며 어린 시절 집에 걸려 있던 가훈 ‘극기복례(克己復禮)’, 즉 욕심을 버리고 예를 따르라는 말을 떠올렸다. 그는 이 가르침을 자신을 깔고 닦으며 환자에게는 친절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다듬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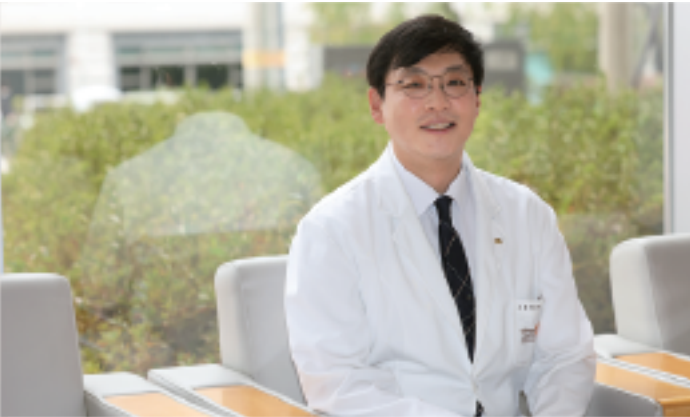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오 동 준 교수

전문진료분야
위장관 질환 및 암 (식도, 위, 소장, 대장), 용종 및 조기암 치료내시경, 염증성 장질환, 기능성 위장 질환

경력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전공의 / 전임의 / 조교수

소속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장연구학회,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진정위원회



체내로 들어온 유해 화학물질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한약(韓方)이 건강하게

토양과 수질오염이 현대사회에서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유엔 환경 계획(UNEP)은 전 세계 하천의 약 40%와 전 세계 농업 토지의 30% 이상이 인간 활동에 의해 심각한 수준의 오염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고 했습니다. 국내의 경우, 환경부의 2023년 환경 통계 연보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을 기준으로 볼 때, 2022년 기준 전체 하천의 약 30% 이상이 중간 이상의 오염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21년 토양 오염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단지, 폐광지, 주유소 부지 등 국내의 오염 우려 지역의 11.3%가 토양 오염 기준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토양과 수질오염은 인간의 건강 상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매년 약 200만 명이 오염된 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수인성 질병(콜레라, 장티푸스 등)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콜레라나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질병은 위생 관리가 좋은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먼 이야기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토양과 수질오염은 우리에게만 어떤 이야기일까요?

토양과 수질의 오염 상태가 인간의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생물농축확대'입니다. 생물체가 주변 환경(물, 토양, 먹이 등)으로부터 스스로 대사하거나 배출할 수 없는 독성 화학 물질을 흡수하면, 이를 체내에 축적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농도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는 오염된 물에서 화학물질을 흡수하여 체내에 축적합니다. 이런 독성 물질은 식물 또는 동물의 먹이사슬에 따라 각 영양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농도가 증가합니다. 즉, 먹이사슬의 상위 단계로 갈수록 독성 물질의 농도가 증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생물농축에 따라 독성 물질이 체내에서 농축된 동물과 식물을 섭취하며, 인간이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임을 고려할 때 이 독성물질은 인간에게서 매우 농도가 높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농축된 유해 화학 물질은 장기적으로 만성 질환, 암, 생식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체내로 들어온 유해 화학물질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한의학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학물질이 일으킨 현상에 대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유해 화학물질에 의해 나타난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질환 등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체내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한약물치료나 침치료를 통해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독 요법입니다. 절식 요법과 절식 보조제, 한약 치료를 함께 병행하는 해독 요법은 체내로 유입된 내독소(소화되지 않은 음식, 활성산소, 염증, 스트레스 등)와 우리가 지금까지 논한 외부로부터 유입된 유해 화학 물질인 외독소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절식을 통해 유입되는 독소를 차단하고 간과 장의 해독과 자가포식을 활성화하여 인체의 면역기전을 정상으로 되돌립니다. 이 때 수용성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함께 충분히 섭취하면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을 촉진하고 해독작용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귀리, 보리, 과일과 체내 유해 산소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는 비타민 C,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비타민, 간의 해독작용을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 B,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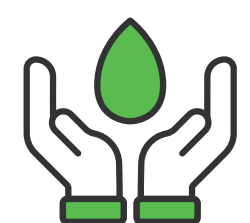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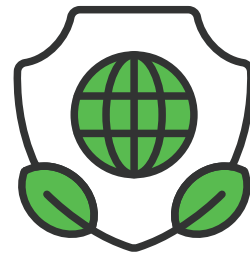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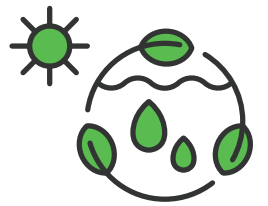
토양과 수질오염은 우리의 건강 상태에 조금씩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의 건강 상태 개선을 위해 한의학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나의 미래 그리고 미래 후손의 건강을 위해 토양과 수질오염을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요? 🌻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박서현 교수

전문진료분야 ▶ 척추질환재활, 마비질환재활,
관절질환재활, 교통사고 클리닉,
추나/도인운동요법 클리닉, 체형교정 클리닉



PART 2 HAPPINESS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평생 다시 만날 수 없는
연인을 보내는
밤처럼 빛나는 도시
스페인 톨레도

계단에서 넘어져 다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불경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다른 시간 속의 나라를 다녀왔다. 14시간의 시차가 나는 미국. 이 글을 쓰는 오늘은 한국에 돌아온 첫날 밤이다. 시차 때문에 잠을 못 잘 수도 있다는 말에 나는 괜찮을 거라고 했다. 워낙 잠을 잘 자는 편이라 시차에 걸리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자리에 누우니 눈만 선명하게 떠지고 잠은 오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혼자 웃었다. 그 많았던 잠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깊은 밤인데도 잠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뉴욕에서의 보름간 삶이 내 평생을 익혀온 잠자는 시간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다. 육신이 지켜오던 습관이란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 습관이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처럼 인식될 수 있었을까. 잠 못 드는 밤에 그 말은 그다지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라고 하는 것이, 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견고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가 습관에 갇혀 살아가므로 스스로 그렇게 규정짓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한 편 보았다. ‘브라이언 벅크스’라는 영화였는데, 가슴에 남는 장면과 대사들이 있어 두 번을 연이어 보았다. 브라이언은 고등학교 미식축구 선수였다. 그는 강간하지 않았는데 강간죄로 복역하게 된다. 그는 감옥에서 한 명상가의 강의를 듣게 된다.

염 화 미 소
拈 華 微 笑
성전스님

“똑같이 감옥의 창밖을 내다봐도 어떤 사람은 진흙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본다. 이것은 삶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다. 우리 삶에서 유일하게 통제가 가능한 것은 삶을 대하는 방식이다. 행복으로 가는 길의 시작과 끝은 마음에 있다.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라. 그러면 모두 자기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삶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바꿈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사실 어떠한 불행이나 고난도 그 자체로 문제는 아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문제일 뿐이다.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마음을 바꾸면 삶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또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는 마음을 바꾸기보다는 언제나 대상 세계를 바꾸려고만 노력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별 대신 진흙만을 보고 있을 뿐이다.

잠이 오지 않는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는 단잠이라는 꿈이 있다. 하지만 나는 단잠이라는 꿈을 버린다. 대신 뒤척이지 않고 앉아서 글을 쓴다. 글을 쓰면서 일생을 장좌불와(長坐不臥) 하셨던 은사 스님을 떠올린다. 스님은 주무시며 살지 않으셨다. 그의 일생은 잠이 없는 일생이었다. 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스님의 장좌불와에 대해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날 여쭙어보았다. “스님께서는 정말 주무시지 않습니까? 온 밤을 좌복에 앉아 새우십니까?” 스님은

잔잔히 웃으시더니 말씀하셨다. “앉기보다 눕기가 어렵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내게는 일주일도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다. 해인사 학인 시절 안거 때마다 선원에 올라가 칠일 밤낮을 철야정진했었다. 길이 흔들리고 몸이 흔들리는 고난의 시간이었다. 그 시간을 스승은 마치 ‘잠깐’처럼 사셨던 거다. 스님의 모든 밤은 거룩하고 고요한 밤이었다. 그 마음이 일념(一念)이니 번뇌의 짐이 없어 고요하고, 보리수 아래 부처님처럼 그렇게 자리하고 앉았으니 그것은 또한 얼마나 거룩한가.

잠 못 드는 이에게 밤은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는 지척도 천 리다. 긴 밤이었다. 그러나 뒤척이지 않았다. 불면에 매이는 대신 글을 썼고 스승의 고요하고 거룩한 밤을 향해 발원했다. 내일을 생각하면 지금 이 시간은 불면이지만 지금만 생각하면 이 시간은 발원과 창작의 시간이기도 하다. 불면은 대상이고 발원은 마음이다. 나는 기꺼이 마음의 시간을 택한다.

모든 생명의 평화를 위한 새벽 범종 소리가 울린다. 그리고 새벽 예불을 나가는 발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가 별에까지 들릴 것만 같다. 이 깊은 고요가 산사의 새벽이다. 이 시간 속에서는 무엇이든 빛난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을 위한 발원들이 새벽 산사에 울려 퍼진다.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바쳐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

글
성전스님
現 천안 천흥사 한주. 현재, 불교방송(BBS)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행복하게 미소 짓는 법〉, 〈빈 손〉, 〈비움, 아름다움, 채움〉,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그래,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좋은 건 다 네 앞에 있어〉, 〈때로 빈찍이고 때로 쓸쓸한〉 등이 있다.

평생 다시 만날 수 없는
연인을 보내는
밤처럼 빛나는 도시

스페인
톨레도



세상을 품은 언덕



시간 여행 길

#1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들어선 톨레도 신시가지의 모습은 특징이 없었다. 우리나라 일산이나 분당의 모습과 흡사했다. 잘 정비된 도로를 통과해 구시가지 방향으로 이동했다. 길이 점차 좁아지고 도로 바닥이 울퉁불퉁한 돌로 바뀌기 시작하면 구시가지에 들어서는 것이다. 나는 유럽을 여행하며 이렇게 신시가지에서 구시가지로 들어서는 순간을 병적으로 좋아한다.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여행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2

예약한 호텔은 알카사르 궁전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 호텔에 체크인만 하고 카메라와 스케치북을 들고나왔다. 톨레도 구시가지 전경이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였다. 아주 오래전 유럽 여행을 담은 책에서 본 한 장의 사진. 바로 그 장면을 실제로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언덕길이라 구불구불 만들어진 도로는 감격의 순간을 한 번에 보여주지 않고 조금씩 공개하는 것 같았다. 마지막 굽은 길을 돌아 보였던 탁 트인 톨레도의 전경은 온몸에 전율을 흐르게 했다. 내 여행과 그림은 사진 한 장이 시작이었고, 바로 그 사진 속 풍경이 눈앞에 있었다. 구시가지 전체를 끼고도는 타호강과 요새처럼 만들어진 외성, 왼쪽 중심에 있는 대성당과 오른쪽 알카사르는 완벽한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구름 하나 없이 펼쳐진 하늘.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 힘든 판타지의 순간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3

엘 그레코의 작품 속 인물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독창적이지만
몽환적인 인물들의 눈빛은 보는 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불편함을
주기도 한다. 그의 그림 속 인물이나
풍경은 현대의 추상화에서처럼 기묘하게
일그러지고 뒤틀리고 변형되어 있어
그가 난시였거나 시각장애를
앓았을 거라는 학설도 있다.
이 천재 화가는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피카소는 엘 그레코의
<다섯 번째 봉인의 개봉>에서 영감을 받아
<아비뇰의 아가씨들>을 그렸다고 말했다.



엘 그레코를 만나다



당신을 따라서

톨레도를 사랑한 그는 죽어서도 톨레도에 남아 산토 도밍고
엘 안티구오 수도원에 있는 가족 묘지에 묻혔다.
하지만 아들 호르헤 마누엘이 수녀들과 말다툼을 벌이는 바람에
가족 묘지는 산토르콰토 성당으로 옮겨졌고, 그 성당이 파괴되면서
엘 그레코의 무덤은 완벽하게 사라지고 말았다.
결국 물리적인 그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의 그림과
그가 걸었던 거리, 그가 머물렀던 성당, 그가 생활한 톨레도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4

호텔 근처에 있는 산타크루즈 미술관에서 그의 그림을 보고
돌아오는 골목길에서 올려다본 하늘엔 하얀 반달이 걸려 있었다.
가로등이 희미한 골목 끝으로 걸어가면 그가 살았던 중세의 톨레도가
펼쳐질 것만 같았다. 도시의 가로등 빛이 더 진해지고 어둠이 짙어지기
시작했다. 호텔 입구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난 다시 걸음을 돌려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꺼냈다. 이 순간 톨레도의 전경이 보이는 언덕은
하늘의 별들과 지상의 별들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았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도시를 밝히는 가로등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달이 한참 기울 때까지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스케치를 했다.
평생 다시 만날 수 없는 연인을 보내는 마지막 밤처럼. 🌸

연인을 보내는 마지막 밤



여행을 그리다
Spain
Toledo

글 · 그림 배 종 훈

낮에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밤과 주말에는 여행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느긋한 외로움을 즐기고 있다.
〈출간도서〉유럽을 그리다,
처마 끝 풍경이 내게 물었다.
마음을 두고 와도 괜찮아,
행복한 명상카툰 외 다수.

계단에서 넘어져 다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68세 김자령(가명)은 거동이 불편한데 이종려(가명)가 운영하는 K 쇼핑몰에 쇼핑을 하러 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크게 다쳤다. K 쇼핑몰 내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고, 4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발을 헛디뎠서 우측 경골근위부 고평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다행히 사고 직후 바로 발견되어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너무 억울하다. 치료비로 300만 원이 나왔고 입원기간 동안 일을 전혀 하지 못했다.

쇼핑몰 내에 엘리베이터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사고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계단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아서 균형을 잡기 어려웠고, 조명이 어두워서 계단을 제대로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보험을 들어두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서 치료비를 본인이 온전히 내야 했다. 김자령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쇼핑몰에서 쇼핑하러 갔다가 괜히 다쳐서 돌아온 것이 억울하기만 하다.

김자령은 법적으로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건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공작물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볼 수 있다.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려면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요구된다.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안전성을 구비했는지 여부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할 수 있다.

건물 내에 있는 계단도 공작물에 해당하고, 계단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면 공작물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공작물책임은 일차적으로 점유자, 이차적으로 소유자에게 인정되는데, 점유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김자령은 K 쇼핑몰 건물이 임대된 것이라면 일차적으로 K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종려에게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만일 이종려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정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서 그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둘 다 피고를 기재해서 소송을 진행한다.

공작물 책임을 묻는다면 김자령이 지출한 진료비 300만 원,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일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김자령에게도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서 책임 범위가 감액될 수 있다.

그렇다면 김자령은 사고 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사고 현장 사진을 촬영해 두어야 한다. 공작물책임의 성립 요건은 원고가 전부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계단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일단 계단의 상태가 어땠는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어야 한다. 계단의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결빙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서
치료비를 본인이 온전히
내야 했다.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

계단의 일부가 파손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물질이 있지는 않은지, 계단의 경사 정도가 너무 가파르지는 않은지, 난간이 있는지, 벽면 손상이 되지는 않은지, 계단 폭이 좁지 않은지, 조명이 너무 어둡지는 않은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공작물책임을 추궁하려면 법리에 맞게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하는데,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셋째, 이종려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협의 여지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판결까지 받아서 종결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소송 없이도 문제해결이 된다. 김자령은 제때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법적인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 🌸

글 주상은

現 원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및 건설 전문 변호사로서, 수용재결, 손해배상 등 다양한 민사사건을 다룬다.

불경

불자(佛子)라면
이 책을 가지십시오!

‘불경’은 그래야만 하는
책입니다!

어딜 가도 책 읽는 사람을 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유튜브 영상이나 가십거리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갈수록 떨어지는 독서율과 문해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쉽사리 느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도 가끔은 복잡한 틈바구니에서 다소곳이 앉아 책에 열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책을 읽는 걸까 궁금하여 슬쩍 결눈질로 살펴보면, 열에 아홉은 『성경』입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면, 이유를 막론하고 ‘책’이라는 물성을 사랑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구나 하는 안도의 기분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믿고 따르고자 하는 종교적 가르침을 삶에서 잠시도 잊지 않으려는

간곡한 마음이 전해지는 듯하여 제 마음마저 사뭇 경건해집니다. 살짝 부러운 마음도 드는 게 사실이고요. ‘불교 도서’라는 조금 특수한 책을 만들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이지요. 불교에도 『성경』처럼 누구에게나 두루 읽히는, ‘불교의 교과서’ 내지 ‘불교의 정석’ 같은 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반갑게도, 얼마 전 그 바람이 실현되었습니다. 붓다의 삶과 가르침의 정수를 담은 『불경』이 출간된 것입니다. 『불경』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석학인 이종표 교수의 평생 원력이 담긴 책입니다. 10대 시절 불교를 만난 뒤, 모든 불자가 의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경전을 만들리란 발원으로

시작하여 50여 년의 세월을 거쳐 비로소 완성한 책이지요. 총 7부로 구성된 이 책은 먼저 『율장』에 근거해 석가모니 붓다가 성불하고, 전법하고, 계율을 제정하고, 교단을 형성한 과정과 붓다 사후 이뤄진 결집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이어서 『디가니까야』, 『맛지마니까야』, 『상윳따니까야』, 『앙굿따라니까야』, 『숫따니빠따』, 『담마빠다』에 담긴 붓다 가르침의 정수를 펼쳐 보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근본불교 텍스트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선별하여 정리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구하는 불교가 불경 없이 불상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누구나 쉽게 붓다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불경을 편찬하겠다는 원을 세웠습니다. (...) 이제 누구나 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불경』이 세상에 출현했으니, 불교의 중심은 불상에서 『불경』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이 세상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부처님 세상이 될 것입니다.” - 머리말 중에서

처음 책을 받아 들고 머리말을 읽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환희심이 샘솟았습니다. ‘모든 불자를 위한 책’, ‘불교의 중심을 다시금 붓다의 가르침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책’을 만들고자 한 저자의 바람이 절절히 와닿고 공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다. 이제 한국 불자들은 『성경』과도 같은 불교 성전(聖典)을 가지게 되었다.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떤 불교 전통에 기반해 있든 간에, 남녀노소 누구나 읽고 따를 수 있는 책을



불경
중각 이종표 편역

가지게 되었다.’ 이렇듯 기쁘고 기대에 찬 첫 마음은 책을 읽는 동안 더욱 커지고 확고해졌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불교의 목적은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붓다는 삶의 모든 고통을 여윈 최초의 인간이었고, 거기에 이르는 길을 사람들에게 숨김없이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붓다처럼 되지 못하고, 갈수록 더 고통이 커지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삶에서 이를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길이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불경』을 곁에 두고 늘 붓다의 가르침 대로 행한다면 매 순간 자신의 삶이 그대로 붓다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말하건대, 이 책을 가지십시오. 불교 공부를 하거나, 불교 수행을 하거나, 혹은 불자가 아니더라도 불교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말이지요. 어떤 불교 책보다 먼저 읽고 자주 읽고 많이 읽으십시오. 읽은 대로 이해하게 되고, 이해한 대로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불경』은 그런 책입니다. 🌸

PART 3
DUMC

불교 정신으로 빚어낸
자비의료 실현
동국대학교의료원 건학위원회

한방에서 찾는 건강한 삶
한방의날 기념행사

정밀하게 암세포 사멸시키고,
따뜻하게 환자 품는 사람들
방사선종양학과

동국대학교의료원 뉴스

보시공덕

여러분과 함께하는 길

진료 일정 안내

불교 정신으로 빚어낸 자비의료 실현



동국대학교의료원 건학위원회는
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을 의료 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구로,
2021년 9월 15일 불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의료서비스의 확산과 발전을
목표로 발족했다.

동국대학교는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 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삼는다.
동국대학교 학교법인에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건학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의료원에는 의료원 건학위원회가
조직되어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자비의료도량으로 우뚝 선 동국대학교의료원

동국대학교의료원 건학위원회는 ‘의료로 불법(佛法)을
홍포하여 건학이념을 구현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시혜의 확산,
자비 정신에 기반한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약사여래불을 본받은 자비로운 의료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건학위원회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2학년도부터 3개년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실행에 옮겨 왔다. 주요 전략 중 하나는 의료서비스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부속병원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수도권 지역에 신규 병원을
설립해 의료 혜택을 넓히려 하며, 구성원들에게 불교
신앙을 고취시킴으로써 의료진과 교직원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자비의 정신을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도약을 위해
의료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ZAP-X(차세대 방사선 수술
장비), PET-CT, MRI, CT 등 첨단 의료 장비를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더 나아가, AI RRS(AI 기반 생체신호 분석
솔루션), 콜센터 AICC(AI 기반 고객 응대 시스템) 등의
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 병원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경상북도 유일의 대학병원으로서
지역의 중추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다.
선형가속기, PET-CT, 로봇수술장비, CT 등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 중환자실과 수술실 확장, 호흡기 폐암센터 개소,
응급의료센터 확장 계획을 추진 중이다.

비전

의료로
불법(佛法)을
홍포하여
건학이념을
구현한다

목표

재도약 기반 구축

신가치 창출

행복한 불교신앙

전략

재도약
기반 구축신가치
창출행복한
불교신앙

동국대학교의료원
건학위원회
중점사항 보고



의료를 통해 자비의 정신을 실천하고, 불법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

또한, 경상북도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되고,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서 국가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병원 내 법당을 설립하여 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을 더욱 고취시키고 있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를 개소하여 중증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의과대학·한의학대학에서는 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의 의료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연구 부문에서는 메디클러스터라는 연구 환경을 조성해 혁신적인 의학 연구를 촉진하고 있다.

신행활동에 앞장서는 동국대학교의료원

동국대학교의료원은 각 병원별로 불교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신행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일산한방병원은 템플스테이에 함께 참여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의료봉사활동으로 강원도 동해시·영월군, 경기도 고양시·김포시 등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찰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에도 참여해 의료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약사보살도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연등 행렬 동참 및 의료지원을 통해 부처님이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하고 있으며,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불교도 대법회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하여 행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해 안전한 행사가 진행되도록 힘을 보탰다.

또한 불교병원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불교대학을 개최해 2024년 27기를 배출했다. 불자로서의 기초교리 및 불교사상의 이해 증진을 위해 신규 교직원과 희망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2022년부터 약사여래불 서원십계 수계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에는 ‘약사여래불서원 수계법회’에서 교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약사여래불 서원십계를 수지하고 자비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빛버들회에서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상캠프, 성지순례, 법회, 환우를 위한 법공양 등 다양한 신행활동으로 부처님 말씀의 향기를 널리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직원들의 신행생활 장려를 위하여 자율신행생활인 ‘슬기로운 신행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명상, 사경, 삼배하기, 반야심경독성, 울력 등 각자 상황과 형편에 맞게 신행활동을 수행하도록 했다.



자비정신 갖춘 미래 의료인 양성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충을 앞두고, 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을 기반으로 한 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양질의 의료인을 배출하기 위해 신의학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교원충원, 교육기자재 확충 등 늘어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미래의 의료인들이 자비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의과대학·한의학대학에서는 불교동아리 심우회 활동이 활발하다. 심우회는 1975년 설립된 불교동아리로서 건학이념 구현, 대학생 전법확대 및 활성화,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한 미래인재양성 및 사회적 확산을 목표로 한다.

一心東國 中興佛教

심우회는 불교를 통하여 스스로 마음을 수련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자세인, ‘심 의(心醫)’를 정립하고 의료봉사를 실천하는 장구한 전통과 역사를 지닌 전무후무한 동아리이다. 2024년 10월 중흥법회를 열어 불교동아리 활성화 기금 전달, 상월결사 창립지원금 전달 등의 행사를 가졌다.



동국대학교의료원 건학위원회는 대의왕불인 약사여래불의 치유 능력을 구현하는 자비의료도량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더 많은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교적 이념을 기반으로 의료 발전을 추구하며 의료, 교육, 연구 전반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

- 1.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일산한방병원 _ 봉축 법회
- 2. 동국대학교경주병원 _ 약사여래불 서원 수계법회
- 3.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_ 약사여래불 점안식
- 4. 의과대학·한의학대학 _ 중흥법회

한방에서 찾는
건강한 삶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의날 기념행사 개최



매년 10월은 한방의 달, 10월 10일은 한방의 날이다. 한방의 날은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외적 위상을 높여 한방의 세계화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지정된 날로 해마다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에서는 지난 10월16일 한방의 날을 기념하여 한의학 관련 행사를 개최했다. 한방병원 교수들의 한방 건강 강좌, 축하공연, 한약 홍보 행사등을 선보였다. 의료진, 환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김동일 병원장은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참여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한 이 시간이 더욱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방
건강강좌

한방의 날을
아십니까?

한방 건강 강좌는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김미경 한방내과 교수는 ‘한약은 간에 나쁘다,’ ‘고령일수록 먹으면 안 된다’는 등 한방에 관한 잘못된 편견을 언급하며 “한약은 특별히 간 독성이 나쁜 약이 아니며, 고령일수록 신체기능이 떨어져 약을 많이 쓸 필요가 없고 안전성을 따져야 한다”며 한약의 올바른 복용법을 설명했다.

장정은 침구과 교수는 ‘올바른 걷기와 발 건강 지키기’를 주제로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 걷기와 걷기 운동에 관해 소개하면서 올바른 걷기 방법을 설명했다.

한경선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는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한 한방 다이어트’를 주제로 한방을 활용한 미용법을 소개했다.



1. 한방내과 김미경 교수
2. 침구과 장정은 교수
3. 한방재활의학과 한경선 교수



내원객을 대상으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의 대표 보양제인 공진단, 동국경옥고, 동국경옥단, 우황청심원 등을 홍보하며 보양제의 효과와 장점을 알렸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의 모든 한약은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관인증을 통과한 원내 탕전실에서 식약처 GMP 인증 한약재를 사용하여 한약사의 엄격한 품질관리 하에 조제된다.

한방 보양제로
건강하게

아카펠라
공연

5인조 혼성 아카펠라 그룹 ‘보이스토이’가 축하공연으로 등장하여 세상의 모든 음악을 목소리로 표현해냈다. 감미로운 멜로디와 완벽한 하모니가 어우러진 공연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각 곡이 끝날 때마다 터져 나오는 환호와 박수 소리는 공연장을 가득 채웠고, 일부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며 공연에 몰입했다. 마지막 곡이 끝났을 때는 앙코르 요청이 끊이지 않았고, ‘보이스토이’는 이에 화답하며 특별한 추가 곡을 선보였다. 🌸



정밀하게 암세포 사멸시키고, 따뜻하게 환자 품는 사람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방사선종양학과는 수술, 화학요법과 함께 암 치료의 3대 치료법 중 하나인 방사선치료를 제공하는 부서다. 암세포에만 집중하고 정상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도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진의 전문성과 경험,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고 인력의 환상적인 팀워크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방사선종양학과는 구성원 6명 모두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의료진임을 자부한다. 전문의 윤형근 교수는 30년 이상의 임상경험을 지닌 베테랑 의사이며, 백종근 의학물리사(의학물리학자)는 IAEA가 인준하는 대한의학물리전문인(KMPCB) 자격을 갖췄다. 합일식 파트장을 비롯한 방사선사 3인방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모든 구성원이 국제치료 전문방사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20년 경력의 간호사까지 방사선종양학과는 환자의 치유를 목표로 성실하게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다져온 최고의 팀이다.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 제공

방사선치료는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종양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종양 부위에 방사선 선량을 집중시키면서 정상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신 방사선 기술과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밀치료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 환자가 방사선종양학과를 방문하면, 먼저 전문의의 진료가 이루어진다. 환자의 질병 상태와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방사선치료가 적합한지 여부와 치료 방법, 기간 등을 결정한다. 치료가 결정된 후, 환자는 CT 시뮬레이션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종양과 정상 조직의 위치 및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 자세를 결정한다. 또한, 맞춤형 환자 고정 기구를 제작하며, 필요시 호흡 교육을 시행하기도 한다.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영상은 치료계획실로 전송되어, 전문의, 의학물리사, 방사선사가 협력하여 최적의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은 약 1일에서 3일 정도 소요된다. 최종적으로 치료계획이





환자와 소통하며 불안감 해소

방사선종양학과에서는 암 환자들이 대부분 한 달에서 두 달간의 긴 치료 과정을 거치는 만큼, 환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문간호사가 각 단계마다 치료의 진행 방향을 상세하게 상담한다. 또한, 환자가 최대한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기실과 치료실을 확장해 깨끗하고 안락한 공간을 조성했다. 쾌적한 조명과 온도, 그리고 개인 공간 확보를 통해 치료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팀원 간 양보와 배려로 깊은 유대감 형성

방사선종양학과에서 팀워크는 생명이다. 업무가 많아 피곤한 날에는 단합회를 하며 잠시 팀원들끼리 기운을 북돋아 준다. 팀원들의 생일에는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 특별하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또, 정기적으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는 전문 지식을 나누고 치료 시 특이 사항을 함께 논의하며,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보낸다. 팀원들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유대감은 점점 깊어지고, 이러한 팀 분위기는 환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방사선 치료 Q&A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서 시행하는 치료 기술 중, 다른 병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현재 방사선 치료 장비는 급속도로 발전하여 상향 평준화되었습니다. 즉, 수도권 대형 병원이 아니더라도 동등한 최첨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다른 병원의 치료 기술과 차별화된 최신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좌측 유방암 환자에게는 DIBH(Deep Inspiration Breath Hold)법을 적용하여 심장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전립선암 환자에게는 Rectal Ballooning(직장 용적 유지용 풍선형 카테터)법을 통해 전립선 위치를 고정하여 정확한 치료를 유도하고 직장 부작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장비인 바이탈빔과 아이덴티파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바이탈빔은 베리안사의 최신 방사선 치료 장비로, 고정밀 방사선 전달을 통해 종양에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주변 정상 조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6DoF couch(6방향 자유도 테이블)가 탑재되어 환자의 위치를 매우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아이덴티파이는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으로, 카메라 기술을 활용하여 특수 잉크나 타투 표식 없이 정확한 셋업을 가능하게 하여 환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합니다. 또한 치료 중 환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전한 치료를 제공하는 최신 기술입니다.

방사선 치료에도 여러 종류가 있나요?

대부분의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 X선, 감마선과 같은 광자(photon)를 이용한 외부 조사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자궁경부암과 전립선암 치료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 시드를 삽입하여 치료하는 근접 치료가 시행됩니다. 또한, 양성자와 중입자(탄소이온)를 활용한 입자 치료가 국내 세 군데의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치료 횟수가 많으면 치료 강도도 강한가요?

방사선 치료의 횟수와 강도(선량)는 암의 종류, 병기, 종양의 위치와 크기,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환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치료를 기준으로 총 15회에서 30회가 기본 치료 횟수입니다. 그러나 정위적 방사선 수술과 같은 특수 치료의 경우 1회에서 5회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 중에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나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이 손주를 보고 싶다면 만나도 되는지 자주 문의하십니다.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에서는 치료실 내에서 방사선 조사를 받고 난 후에 방사선이 체내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삽입하는 영구 자입형 근접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탈모가 생기나요?

방사선 치료는 해당 치료 부위에만 조사되는 국소 치료이므로 일반적으로 탈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 부위가 두부인 경우 일부에만 모발이 손상되어 일시적 탈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치료가 끝난 후 몇 개월 내에 회복됩니다. 🌸

DUMC NEWS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 만성폐쇄성폐질환 · 천식 · 결핵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천식 적정성 평가, 결핵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는 9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여 병원의 호흡기 질환 관리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앞으로도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로봇수술 500례 달성 기념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9월 12일 ‘로봇수술 500례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채석래 의료원장, 권범선 병원장, 임가원 로봇수술센터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로봇수술센터 의료진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임가원 로봇수술센터장은 기념사에서 “앞으

로도 풍부한 로봇수술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정밀한 수술적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AP-X 아시아 방사선수술센터 일산, 국내 최다 ZAP-X 방사선 수술 100례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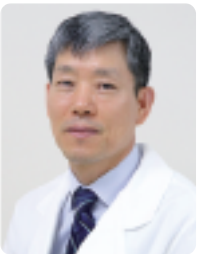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일산병원 ZAP-X 아시아 방사선수술센터 일산은 10월 7일 ZAP-X 방사선수술 100례를 달성하며 국내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번 성과는 지난 5월 첫 수술을 시행한 이후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ZAP-X 방사선 수술의 성공적인 치료를 반영하고 있다. ZAP-X 장비는 지난 3월 수도권 최초, 전 세계에서 21번째로 도입된 최첨단 방사선수술 장비다. 특히 뇌 및 두경부 질환 치료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기존의 방사선 치료 장비 중에서도 높은 정밀도를 자랑한다.



가정의학과 성낙진 교수, 대한가정의학회 ‘KJFM 학술상’ 수상

가정의학과 성낙진 교수가 지난 10월 5일부터 6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KJFM 학술상’을 수상했다. ‘KJFM 학술상’은 대한가정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영문 국제학술지 KJFM(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에서 최다 인용 저자로 선정된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성낙진 교수는 학문 발전과 학술지 연구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헬스케어’ 합동 포럼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0월 24일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동국대학교 공과대학과 합동 포럼을 개최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의료 시스템의 혁신적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지능형 로봇의 역할, 생성형 AI 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 동향, AI 스마트 병원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디지털 기술이 고령화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 북부권역난임 · 우울증상담센터, ‘임산부의 날’ 맞아 기념행사 및 경기 임신 출산학교 개최

경기북부권역 난임 · 우울증상담센터는 지난 10월 10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대강당에서 임신부와 함께 경기 임신 출산학교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회의원 김성희 · 이기헌 의원실,

장석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권범선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 정은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한정열 임신부약물정보센터장, 지구덕 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경기도 건강증진과 관계자 및 경기도의원, 고양시의원, 임신부와 그 배우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희선 센터장은 건강한 임신 및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며 임신부와 가족들의 복지 향상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개원 19주년 기념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9월 27일 개원 1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 채석래 의료원장, 권범선 병원장, 김동일 한방병원장 등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하여 병원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자 표창을 비롯해 이사장 공로상, DUMC 혁신상, 동국학술연구상, 모범교직원 표창장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은 “19년 전 부처님의 지혜, 자비 정신과 동국대학교 건학이념인 이상세계 구현을 위해서 모든 불자가 하나가 되어 병원을 설립했다”며 “어려운 시기에도 교직원들이 병원을 잘 이끌어 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4 불교도 대법회’ 의료지원단 지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9월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24 불교도 대법회’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하여 대중들이 안전하게 법회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권범선 병원장을 단장으로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총 30여 명의 의료진이 참여했다. 의료지원단은 의료부스를 운영하며 양한방 진료, 처치, 투약을 비롯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를 준비하는 등 불교도 대법회의 원만한 회향에 힘을 보탰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동해시에서 지역 주민 대상 의료 봉사활동 펼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지난 10월 20일 동해시 삼화동 일원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김동일 병원장을 비롯해 한의사 7명, 간호사 13명, 물리치료사 3명 등 총 28명의 의료진과 쌍용 C&E 임직원 등이 참여해, 300여 명의 주민들에게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의료봉사단은 쌍용 C&E 동해공장 종합기술훈련원에 마련된 임시 진료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 혈압 · 혈당 검사, 침, 물리치료 및 약 처방 등 종합적인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4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역량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KTAS 1~2등급) 치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인 중증 응급환자 치료역량을 높여 신속한 최종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허가병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중 인력구성, 진료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총 14곳을 지정하였으며, 경북 지역에서는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이 대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다.

환자경험평가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23년 환자경험평가 결과 1등급을 획득했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개인의 선호, 필요 및 가치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를 확인하는 평가이다. 평가는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시행돼 상급종합병원 47곳과 종합병원 327곳을 포함한 총 374개 의료기관의 퇴원 환자 6만 4,24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 항목은 △간호사 △의사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환경 △환자권리보장 △전반적 평가로 모두 6개이다.

개원 33주년 기념식 개최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10월 18일 개원 3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사단법인 21세기 불교포럼 황경환 이사장,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의원,

정주호 동국대학교경주병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의 주요 경과 및 향후 사업 추진현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감사패(박승직 도의원), 공로상(물리치료실 류경현), 30년 근속상(19명), 20년 근속상(6명), 10년 근속상(9명), 모범상(17명)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었다.

정주호 병원장은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끊임없는 도약으로 많은 변화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역 거점 의료 중심 병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같이 해서 더가치 있는’ 환자안전 캠페인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9월 25일 올바른 환자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환자안전 활동에 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13회 환자안전 주간행사 및 다같이 해서 더 가치 있는 환자안전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이번 환자안전행사는 PI실과 감염관리실에서 환자와 보호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세계 환자안전의 날 주제인 ‘환자안전을 위한 진단 향상’에 맞춰 △환자안전 캠페인 포스터 전시 및 퍼즐맞추기 △환자안전 퀴즈 스나의 다짐 △감염예방 활동 등을 통해 환자 안전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개소식’ 개최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지난 10월 11일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를 공식 개소하며, 불교계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실천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번 개소식에는 채석래 의료원장, 김근우 병원장, 이주아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10개 병상과 임종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가족실 및 목욕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를 구축했다. 또한, 의사, 간호사, 성직자,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팀이 통합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불교 호스피스의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슬기로운 신행생활’ 프로그램 통해 직원들의 자율 신행활동 장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신행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슬기로운 신행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 신행활동과 조별 신행활동으로 구성되어, 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행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개인 신행활동은 △명상하기 △사경(불경 필사) △3배 하기로 구성됐으며 조별 신행활동은 △반아심경 독송 △울력(공동 작업)으로 구성됐다. 지도법사 보경스님은 “직장 생활 속에서 신행활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숨을 쉬고 눈을 깜빡이듯 자연스럽게 신행을 실천하면 좋겠다”며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했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2024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대비 워크숍’ 개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9월 6일 ‘2024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방문 평가를 앞두고 역량 강화기획관리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 예정인 의학교육 평가인증 현장방문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자리로, 대학 측은 지난 7월 한국 의학교육평가원에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제출 경과를 보고하고, 방문 평가 일정 공유 및 준비 계획을 논의하는 등 평가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또한 의학교육평가원의 주요 변화 평가 계획을 안내하며,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의학교육 교수 개발 합동 워크숍’ 개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10월 2일부터 3일까지 소노캄 고양에서 ‘동국대학교의과대학 교육의 현황 점검과 미래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2024학년도 의학교육 교수개발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동국대학교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원칙(김경지 교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경과 및 계획(이관 학장) △미래 연구를 향한 도약과 혁신(김헌덕 의무산학협력팀장)에 대한 주제발표로 진행했다.



보시
공덕

법륜스님이 8월 5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의료 장비 구입에 써 달라며 1천만 원을 기부했다.

법륜스님은 “내년 개원 20주년을 앞두고 최첨단 병원으로 도약하는 데 보탬이 되고, 자비의료 실천의 약사도량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기부 의사를 밝혔다.

법륜스님은 청정 수행을 이어가는 비구니 스님으로, 작은 사찰을 운영하며 찌는 듯한 무더위에 에어컨도 없이 여름을 보내고,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껴가며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소박한 생활 속에서도 자비를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과 병원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매월 50만 원씩 정기기부도 동참하고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박주현 교수에게 어깨 수술을 받고 치료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김희석님과 조카 오인숙님이 8월 14일과 9월 13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기금으로 각각 5천만 원과 1천만원 총 6천만 원을 기부했다.

김희석님은 정형외과 박주현 교수님과 인연 된 모든 의료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동국대학교병원의 발전을 기원하며 기부에 동참했다. 조카 오인숙님도 “삼촌은 기부가 몸에 배었다 할 정도로 평소 다양한 곳에 기부의 가치를 실천해 오신 분이다. 그 뜻을 깊이 공감하며 동참하게 되었다”며 기부 소회를 밝혔다.



“

기부자님이 보여주신
깊은 뜻과 넓은 마음을 새기어
생명 존중과 자비 의료를
실천하겠습니다.

”

진*스님은 의료장비도입 등 병원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9월 4일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은사스님 입적 후에도 5천만 원 기부 회향을 하였고, 현재까지 누적 금액이 8천만 원에 달한다. 스님은 적어서 미안하다며 애써 당신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며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깊은 가르침을 주었다.

부산 증산사 묘광스님은 9월 4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반스님을 통해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스님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심에도 불교병원의 발전을 발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재를 회향했다. 이번 여름 찌는듯한 폭염에 에어컨을 설치해 드렸는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스님의 청정수행의 면모를 도반스님은 전했다.

故 양국창 님 배우자는 남편의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병으로 힘들 때 두렵고 불안한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심장혈관흉부외과 최민석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9월 9일 1백만 원을 기부했다.

故 양국창 님 배우자는 “좋지 않은 결과를 전해야 하는 교수님의 고뇌와 치료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과 위로를 받았다. 살아 있는 부처님이 있다면 교수님이 아닐까 생각한다. 위급한 생명을 살리는 참 의술을 앞으로 오래오래 펼치길 늘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보령 화현정사 故 **대현스님**은 10월 4일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발전기금으로 **5천만 원**을 쾌척했다. 도반스님들은 10월 8일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故 대현스님의 생전의 뜻을 전달했다. 대현스님은 2023년 8월 25일 세납 61세, 법랍 44세로 입적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입원중인 **이매자 님의 자녀**는 어머니의 입원 중 치료과정에서 전담간호사실 박수현 간호사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 받아10월 14일 박수현 간호사 이름으로 **5십만 원**을 기부했다. 이매자 님 보호자는 “제가 병원 생활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고마운 간호사 선생님을 만난 건 복이고 인연이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우룡스님이 10월 14일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발전기금으로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스님은 “불교종립병원으로서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길 바란다”며 기부의 뜻을 전했다.

보관스님이 10월 15일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발전기금으로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스님은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무한한 발전을 해주길 바란다”며 기부소회를 밝혔다.

언제나 동국대학교병원을
지켜봐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기부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부자	기부액(원)
KB국민은행	100,000,000
김희석	50,000,000
대현스님	50,000,000
서목스님	50,000,000
일오스님	50,000,000
진성스님	50,000,000
화정스님	50,000,000
이상호	30,000,000
묘광스님	20,000,000
우룡스님	20,000,000
진*스님	20,000,000
(주)아라니아	15,000,000
법륜스님	11,100,000
보관스님	10,000,000
오인숙	10,000,000
종성스님	10,000,000
지철스님	6,600,000
김도현	5,612,710
백수활	5,000,000
성범스님	5,000,000
신선기	2,000,000
이명규	2,000,000
장종인	2,000,000
정각스님	2,000,000
조유하	2,000,000
故 윤구모	1,000,000
김진희	1,000,000
박미봉	1,000,000
염연화	1,000,000
최경인	1,000,000
최진이	1,000,000

각무스님	김광태	김영복	남현미	박 관	법친스님	수근스님	원해스님	이승철	이해근	정은경	차옥련	행이스님
강경임	김국현	김영숙	남화연	박대호	법해스님	수현스님	유경자	이애영	이호준	정이선	차행운	허은경
강명숙	김귀연	김영진	노경란	박동우	변재욱	수환스님	유광욱	이양희	이효정	정일스님	채석래	허정길
강석진	김규빈	김영현	노명서	박동진	보 경	신경근	유미숙	이연희	이희영	정재스님	채은미	허정길
강세연	김근우	김예경	노수익	박동화	메디칼	신경민	유서영	이영권	이희지	정재우	채지원	현담스님
강시우	김기연	김용배	노영수	박미형	보경스님	신경수	유인희	이영미	인 공	정재현	초은암	현문스님
강은경	김남익	김용숙	능지스님	박미혜	보관스님	신대규	유정임	이영실	인승순	정정숙	최금례	현암스님
강은석	김남희	김원교	대광스님	박복규	보관스님	신동환	유주형	이영아	인준용	정주스님	최동렬	현우스님
강인자	김단혜	김은미	대원스님	박상희	보관스님	신복섭	유창국	이영일	일진스님	정지우	최무환	현재호
강혜진	김대수	김은영	대한불교 대승종 불국사	박성미	보리수	신석재	유현숙	이영찬	임가원	정진욱	최문이	현진스님
경보호	김덕희	김은정	대승종 원 필	박성주	본각스님	신성숙	유형주	이예린	임경자	정하영	최문천	현대주
경원악국	김도연	김은정	대한불교 조계종 봉덕사	박성주	부동스님	신성현	윤금섭	이용찬	임명숙	정혜은	최병철	해광스님
경조스님	김도연	김은진	대한불교 조계종 봉덕사	박성파	부안리	신윤주	윤민아	이용필	임상혁	정혜주	최보은	해능스님
경희스님	김도연	김은희	대한불교 조계종 봉덕사	박세진	삼해스님	신은희	윤복연	이우섭	임선희	정혜진	최상돈	해도스님
고금자	김도현	김의정	대한불교 조계종 옹주사	박소연	상오스님	신정용	윤수임	이원찬	임영택	정화스님	최상분	해륜스님
고미선	김동일	김이수	대한불교 조계종 보현선원	박수연	서미경	신정훈	윤순선	이유나	임윤정	정류스님	최성현	해연스님
고완영	김매화	김익환	대한불교 조계종 보현선원	박수혁	서연희	신학녀	윤승환	이유미	임재민	제승규	최영자	해원스님
고은주	김명숙	김인숙	대한불교 조계종 보현선원	박수현	서영문	신현모	윤정희	이은미	임재선	제아람	최완우	해일스님
고재영	김명숙	김인영	대한불교 조계종 보현선원	박신애	서영진	신희정	윤해서	이은우	임종대	조갑자	최왕열	해정스님
고재욱	김무종	김전충	대한불교 조계종 원적정사	故박아임	서 준	심미나	윤혜진	이은자	장경미	조동삼	최유안	해철스님
고지현	김문식	김정미	원적정사	박애자	서준석	심운스님	윤효영	이은정	장대현	조민주	최유정	훈성스님
고현스님	김미경	김정미	대한불교 조계종 장안사	박옥석	서지원	쌍계사	은정스님	이은주	장상영	조상현	최은정	홍민재
공학배	김미경	김정배	조계종 장안사	박원익	서 찬	안대승	이강현	이인오	장수자	조선분	최은희	홍민희
곽범석	김미숙	김정성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선원	박원예	서희주	안숙자	이경미	이자경	장유민	조원철	최진하	홍승욱
관정스님	김미숙	김정수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선원	박유진	선경스님	안영길	이경순	이재우	장정래	조성순	최인주	홍여욱
구남이	김미옥	김정애	대한불교 조계종 대광사	박은동	선근스님	안인숙	이경신	이재환	장윤지	조소영	최재원	홍유실
구병수	김미형	김정형	대한불교 조계종 대광사	박일엽	선도스님	안지은	이경원	이재훈	장정화	조수진	최정미	홍은순
구복심	김미화	김정혜	대한불교 조계종 대광사	박재숙	선보스님	양광영	이경택	이정백	장춘설	조승호	최정민	홍은정
구순점	김민경	김정훈	덕업스님	박재영	선영스님	양오남	이경환	이정숙	장태영	조아령오	최정숙	홍주혜
권경순	김민규	김종대	덕은스님	박정애	선재스님	엄미애	이경희	이정숙	장호근	조원복	최정화	희응스님
권기현	김민규	김종애	덕진스님	박정자	성광스님	엄희경	이구슬	이정스님	재우스님	조원철	최정하	함성스님
권나은	김민규	김종윤	도견스님	박정화	성범스님	여옥스님	이나영	이정우	적조스님	조은복	최준용	함설희
권대식	김병환	김지영	도명스님	박정희	성보스님	여현스님	이나현	이정화	전솔이	조은주	최진영	함성순
권도윤	김보승	김지예	도민스님	박종학	성본스님	여휘경	이도권	이정희	전소영	조익준	최창익	함순덕
권도화	김봉희	김지원	도원스님	박준자	성수스님	염윤정	이동욱	이충철	전용화	조정숙	최현정	함영철
권두경	김삼기	김 철	도진스님	박종희	성수현	염주홍	이명순	이주현	전원용	조정아	최희원	함은선
권 민	김선경	김태현	동국대 학교경 주병원	박진아	성숙희	영인스님	이명희	이주희	전은영	조주연	탄봉스님	함원진
권삼숙	김선아	김태영	동성스님	박채희	성진스님	오금남	이문희	이지영	정경윤	조혜진	탄정스님	함은영
권성욱	김선주	김태윤	동 심	박철근	성학스님	故오기남	이문희	이지영	정경철	조희경	탄하스님	함재영
권오성	김선주	김태은	모금학	박철용	성효은	오명욱	이미수	이지원	정기스님	조희근	탄하스님	함정수
권오철	김선희	김하경	동진스님	박현숙	소선기	오미정	이미숙	이지혜	정길석	조희연	편정숙	함정희
권일진	김성경	김한성	드림 네트웍	박현숙	소연스님	오석한	이미영	이지호	정륜스님	종일스님	표근종	효광스님
권태용	김성원	김해옥	국경	박현주	소행연	오성은	이민자	이진권	정목스님	주경희	표정연	홍수스님
권태형	김세민	김해정	류대안	박현주	손귀득	오수진	이병기	이진희	정미라	주상봉	푸르메 재단	희덕스님
권희재	김세희	김현규	마의자	박희상	손명희	오영선	이병훈	이찬순	정미선	주선영	재 단	외 다수 익명
금곡스님	김소원	김현서	만불선원	박효빈	손민표	故오정열	이보영	이창실	정보욱	주은명	하경임	위 다수 익명
기강우	김솔아	김현준	명서은	박효진	손재현	오진숙	이상미	이재원	정석화	주혜스님	하정희	
김가빈	김수현	김혜자	명순정	반혜민	손정숙	오치훈	이상현	이춘자	정수스님	지광스님	하현지	
김강림	김수희	김혜정	모종은	방선자	손주연	오 피	이서현	이충진	정숙희	지목스님	한광수	
김강태	김숙경	김혜진	묘수스님	배상만	손채령	메디(株)	이선아	이태우	정승택	지석스님	한송이	
김경숙	김숙자	김호준	묘학스님	배서영	손효정	육천암	이선희	이태우	정승택	지우스님	한윤희	
김경숙	김순덕	김환례	무관스님	배수현	손효진	우경스님	이설희	이해원	정승현	지일스님	한은숙	
김경순	김순례	김홍수	무구스님	배지현	손희진	우덕스님	이세임	이향련	정심스님	진경애	한재필	
김경욱	김순만	김희경	무진스님	백두진	송국현	우선애	이소영	이향미	정양임	진모스님	한정훈	
김경호	김순자	김희영	문장우	백숙희	송동현	우점순	이소정	이향지	정연화	진삼스님	한주아	
김경희	김시연	김희진	밀봉암	백윤정	송보윤	우종훈	이수진	이현복	정영희	진성스님	한주형	
김경희	김연화	나경스님	밀암스님	범선스님	송은호	원 각	이수철	이현숙	정원기	진성스님	한희찬	
김광기	김영려	남유화	박경문	법정스님	송주의	원명사	이승우	이현창	정원스님	진영숙	해덕스님	
김광오	김영미	남정애	박계숙	법친스님	송창숙	원명스님	이승욱	이형경	정윤준	진임자	해랑스님	

100만원 미만 기부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gil**

퀴즈

동국대학교의료원 ○○○○○는(은)
'의료로 불법을 홍보하여 건학이념을
구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시혜의 확산과 자비로운
의료인 양성을 목표로 하며, 부속병원의
재도약과 수도권 신규 병원 설립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들에게
불교 신앙을 고취시킴으로써 의료진과
교직원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자비의 정신을 실천하도록 독려합니다.
○○○○○는 무엇일까요?

의견

김희선 교수님에 대한 글을 읽고
따뜻한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고등학생 산모가
죄책감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결국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결심하게 된
사연입니다. 그리고 김희선 교수님이
단순히 의료적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출산 이후에도 미혼모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혼모와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우★ 님

칭찬

모성은 수선생님, 최민아, 박주영, 손희진,
백지향, 이화경, 이지혜, 이서연, 정유정
선생님..., 이름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지만
71병동 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
병동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짐을 들어주며
걱정해 주시고, 입원 기간 내내 진심으로
대해 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병동에서 제멋대로 뛰어다녀도
귀엽게 봐 주시고 간식까지 챙겨주시며,
항상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바쁜 와중에도
지나가다 한번씩 눈길을 주시며, 보호자까지
걱정해주시는 모습까지...
입원하고 있는 동안 진심어린 보살핌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감동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한가득 남아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김혜★ 님



퀴즈의 정답, 다양한 의견, 칭찬글을 작성하여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지난호 정답 : 다빈치 로봇수술 / 정답자 : 이금★

참여
방법

- 1 참여 내용과 이름, 전화번호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 sokuon@dumc.or.kr
- 2 퀴즈 / 의견 / 칭찬 중 택 1 참여 가능합니다.
- 3 퀴즈 정답 및 선정된 내용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
위
선

동국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대표자 :)	☐ 익명요청 (모든 홍보물에 익명으로 표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본 의료원과의 관계 (※ 중복 체크 가능)	☐ 불교계 (☐ 스님 ☐ 불자) ☐ 일반 (☐ 환자 ☐ 보호자) ☐ 교직원 ☐ 동문 ☐ 기타 ()				
직장명	부서		직위		
우편물 수령주소	☐ 자택 ☐ 사찰 ☐ 직장				
휴대폰번호	010 —	유선전화			

약정

약정액	현금	원 (₩)	☐ 현물기부(원)상당				
약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월()원씩 / 총()회
기부금 용도	☐ 의료원(병원 · 대학) 발전기금 ☐ 지정기금 (지정)						
	☐ 병원발전기금 (☐ 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 ☐ 경주병원 ☐ 분당한방병원)						

납부방법

본인 자동이체 신청	월정기납 : 매월 ()일 예금주 : 이체은행 : 본인 자동이체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입금방법 (☐ 일시납 ☐ 분납) 입금자명 : ☐ 동 국 대 학 교 일 산 병 원 ▶ 국민은행 778037-00-000011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동국대학교일산병원(충축기금) ▶ 국민은행 778037-00-000347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동국대 학교 일 산 한 방 병 원 ▶ 국민은행 778001-00-059986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한의원 ▶ 우리은행 1005-202-076965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 동국대 학교 분 당 한 방 병 원 ▶ 국민은행 368137-01-001162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분당)				
자동이체(CMS)	출금일 : 매월() ☐ 1일 ☐ 18일 ☐ 25일 (총 원) 예금주 : ☐ 기부자와 같음 은행명 : 계좌번호 :				
급여공제	사번 : (※ 재직 교직원에 한함)				
정보동의	☐ 약정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기부금 납입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자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수집목적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보유기간 : 5년)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자동이체 동의여부 통지 안내 : 효성에프엠에스㈜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 후원자는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상기와 같이(효성에프엠에스㈜, 국제청(기부금 세제혜택 근거자료)동의합니다.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기부(약정)합니다.
기부(약정)인 : 서명(인)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귀하

- 동국대학교의료원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나눔의 기쁨과 더불어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약정서 송부** : 주소 ▶ 10326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 이메일 ▶ hongbo@dumc.or.kr / 팩스 ▶ 031·961·9239
- **문 의** : 동국대학교병원 대외협력홍보팀 발전기금 담당 031·961·9000

보내는 분

주소

연락처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24. 9. 1. ~ 2026. 8. 31.

고양일산우체국
제269호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음이 다치고, 몸이 아파도 사는 게 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일상이 늘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힘겹고 지칠 때도 많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취청일 때 손을 내밀어주고 기대고 싶을 때 어깨를 내주고
지친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동국대학교병원의 마음이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절취선

이곳에 풀칠하세요.



나눔의 첫걸음,
동심 1·3·5와
함께 해주세요!

동심 1·3·5와 함께

동심 1·3·5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여
동국대학교병원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 동국대학교병원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同心 ① 매월 1만원으로 여러분과 함께 실천합니다!

기부자님이 보여주신 깊은 뜻과 넓은 마음을 새기어 생명존중과 자비의료를 실천하겠습니다.

東心 ③ 매월 3만원으로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기부자님의 나눔은 빛나는 동녘의 태양이 되어 동국대학교병원의 미래를 비춥니다.

動心 ⑤ 매월 5만원으로 새롭게 성장해 갑니다!

기부자님의 관심과 격려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동국대학교병원의 성장 동력입니다.

- 동국대학교의료원의 발전을 위한 진료, 연구, 교육, 저소득층 환자 지원 등 후원자가 지정하는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게 됩니다.
- 후원은 현금, 주식, 기타 자산이나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하며 기부하신 후원금·자산·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매월 정기기부 외에도 일시납으로 기부액에 상관없이 동심 1·3·5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자의 이름과 기부내용을 명패로 제작·등재하여 그 숭고한 뜻을 기념하며 진료비 감면, 전담 직원 안내 서비스 및 검진권 제공 등 맞춤형 진료 및 편의를 제공합니다. (후원금별 상이)

후원 기관	후원 문의	후원 계좌	예금주
동 국 대 학 교 일 산 병 원	tel 031. 961. 9000	국민은행 778037-00-000011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증축기금)	tel 031. 961. 9000	국민은행 778037-00-000347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동 국 대 학 교 일 산 한 방 병 원	tel 031. 961. 9000	국민은행 778001-00-059986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동국대학교경주병원·한의원	tel 054. 770. 8130	우리은행 1005-202-076965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동 국 대 학 교 분 당 한 방 병 원	tel 031. 710. 3712	국민은행 368137-01-001162	동국대학교의료원(분당)



유튜브에서
동국대학교의료원을
검색하세요.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생명존중과 자비의료실천으로
부처님 법 전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 70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표전화 054, 748, 9300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대표전화 031, 710, 37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